



5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뽑아냈습니다.  
 '신형연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지난 17일 밤(이하 한국시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볼턴 언더러스와 홈 경기에서 폴티임을 소화하며 전반 14분 선제골과 전반 25분 팀의 세 번째 골로 연속 득점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지성 ② 설기현 ③ 이영표 ④ 이동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0일(음 2월 2일 癸丑)

- 子** 36년생 대풍은 없지만 득도 없다. 48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60년생 자녀로 불운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72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84년생 보장은 절대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라. 행운의 숫자: 12, 41
- 丑** 37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49년생 심기가 개운치가 않으니 운동을 해야. 61년생 부부의 일정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73년생 유혹 속에 離縁歲月 한탄 하라. 85년생 근간간의 말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08, 30
- 寅** 38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50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62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74년생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살리워주라. 행운의 숫자: 09, 37
- 卯** 39년생 직업의 沈滯과 재물의 불량이 있을 수 있다. 51년생 지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 63년생 막힌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인내해야 한다. 75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再充電하라. 행운의 숫자: 10, 40
- 辰** 40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52년생 평범한 하루이니 善美를 있다. 64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봐라. 76년생 직장에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20, 43
- 巳** 41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53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해봐라. 65년생 길사가 계속 될 것이니 손재와 상의의 善美를 생각하라. 77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11, 27
- 午** 42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54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고맙게 생각하라. 66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니 마무리가 시원치 않다. 78년생 지혜 있는 선배와 상의의 善美를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14, 27
- 未** 43년생 社木回春이나 더욱 더 잘 가꿔라. 55년생 희망의 사이를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67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봐라. 79년생 도와줄 사람이 뜻 밖에 있다. 행운의 숫자: 17, 38
- 申** 44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6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정직과 신뢰에 있다. 68년생 투자는 미루고 신사업의 내실을 기하면 心的 善美를 없으리라. 80년생 여성을 만날 때 결혼한 선배와 상담하라. 행운의 숫자: 05, 25
- 酉** 45년생 부부간의 등산으로 意氣投合을 시도해 보라. 57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9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응서하며 살라. 81년생 옛 것으로 말쑥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07, 36
- 戌** 46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58년생 가정과 부부간의 불화는 생방과실이나 사람으로 해결하라. 70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있다. 82년생 우기 있게 전진하라. 행운의 숫자: 20, 41
- 亥** 47년생 沈滯狀을 아래 사람에게 내 것. 찬다는 마음으로 극복하라. 59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71년생 될 듯 될 듯 계획이 계속 이루어진다. 83년생 옛 문서 잡고 눈물이 날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21, 2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사진기자의 땅짓

도시에서 나타난 스파이더맨

고층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을 닦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려면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실사 올라갔더라도 다리가 후들거려 밑을 내려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할 높이인데 말이죠.  
 그냥 올라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 아슬아슬합니다.  
 혹 매들이 풀리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죠. 오죽했으면 레펠 훈련을 밥먹듯이 한 군 특수부대나 경찰특공대 출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광주시 동구 광산동 남양주택산업(주) 건물 해체 현장을 지나면서 그런 장면을 잡았습니다. 5~6명의 인부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을 둘러싸는 가림막을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있던군요.  
 자세히 보니가 이 분들, 몸에 묶는 안전용 밧줄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마천루 외벽을 오르내리는 영화 '스파이더맨'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생명줄도 없이 공중에 매달려있는 셈이니까요.  
 조마조마하면서도 능숙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가라도 나누고 싶더군요. 과연 지상 21m 높이 건물 위에서 맨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겁이 없는 건 큰 분들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서울것이 없이 단련이 되는지 말입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김경균 (광주북성중학교 교사)

두발 규제, 억압만은 아닐거야

규범을 강요하는 곳이라는 비판이 떠오르더군요. 두발 자율화는 자율적이고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너희 열망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도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게 하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능력을 기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지. 만약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너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획일적 순응을 강요한다면 결코 옳은 교육이 될 수 없겠지. 난 생각했었다. "학생이 공부 말고 신경 쓸 게 뭐 있겠느냐"라든가 '단정한 머리 = 스포츠형 머리'라는 논리로 대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두발에 관한 규정이 너희에게서 자율적인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앗아버리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발묘조장(拔苗助長,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돕는다)'이라는 말을 떠올렸었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나이 마흔에야 마음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의 경지에 이르렀다(四十而不惑)'고 했고, 맹자도 공손추와의 대화에서 40세에 이르러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에 따라 뜻гүй

나아가는 용기로, 옹맹이나 완력이 아니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의미한다.  
 그런데 옛날 송나라의 어떤 어리석은 농부는 자기 논이 벼가 잘 자라지 않자 억지로 싹을 뽑아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그만 벼가 허약하게 메말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발묘조장'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다.  
 네가 원하는 두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유명 연예인이나 최근의 유행을 따르고 싶은 욕구는 아니었나? 그 모습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의 개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니?  
 농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풍성한 수확을 꿈꾸지 않는 농부는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상을 꿈꾸기 마련이란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농부라면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고, 거기에 건설한 씨앗을 뿌린 후 정성을 다해 가꾸지 않겠나. 우선 먹기에 낫지 않던 밭, 현실은 당장에 필요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만 이내 미래에 대한 공허함에 다가서기도 한다. 그래서 성숙한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절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물론 내가 너희 뜻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목표를 정해 그것을 강요한다면, 이 또한 '발묘조장'의 우를 범하는 것이겠지. 서로 많은 고민을 해보자구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생각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열린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제1회 광주시 교육감선거 교직원부 결승전**

백 김상표 4단 (운암중 교사)  
 흑 정갑면 4단 (진흥고 교사)

단정 정갑면 4단의 승부수로 아연 흑 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상표 4단은 130으로 잡고 132를 선수하며 흑이 살 수 없다고만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방심이 결국 화를 불렀다. 흑 137 때 백 138이 흑 대미를 살려주었고 말걸수로 천하의 대우였다. 이 수로 '참고도'의 백 1로 있었던 흑 4로 깨우더라도 7까지 살 길이 없었다. 139가 선수가 되어 141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극적인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F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조치훈 생애 70번째 우승**

'노병' 조치훈(51) 9단이 생애 7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조치훈 9단은 지난 18일 열린 제54기 NHK배 결승에서 관서기원 '에이스' 유키사토시 9단에게 흑 3집 반승을 거두며 지난 43기 대회에 이어 11년만에 대회 우승을 재탈환했다.  
 일본 랭킹 1위인 아마시타 케이고 9단을 상대로 10단전 타이틀전에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조 9단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승세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9단과 유키 사토시 9단은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우승상금은 500만원(한화 약 4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b>굿모닝 잉글리쉬 &lt;864&gt;</b></p> <p>Let's hit the road 자, 갈까</p> <p>A: Well, it's getting kind of late. B: It's only 10. A: But it will take us at least an hour to get to Sooncheon. B: OK. Let's hit the road.</p> <p>A: 좀 늦었구나. B: 겨우 10시인데 뭐. A: 하지만 순천까지는 적어도 1시간은 걸려. B: 알았어. 가자구.</p> <p>kind of ~ : 약간~ It'll take @ to ~ : @에게는 ~걸릴텐데 Let's hit the road = We'd best be on our way = Let's get going = let's hit the hay</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b>오하오우 니혼고 &lt;864&gt;</b></p> <p>家は共□(ともぼたら)きです 저희는 맞벌이에요</p> <p>A: 田中さんは結婚(けっこん)しても□(はたら)くんですか。 B: いいえ、家事(かじ)だけ専念(せんねん)してほしいと彼(かれ)に言われて。木村さんは? A: 家(うち)は共□(ともぼたら)きです。</p> <p>A: 타나카씨는 결혼해도 일하실 건가요? B: 아니요. 그가 가사에만 전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요. 기무라씨는요? A: 저희는 맞벌이에요.</p> <p>共□(ともぼたら) : 맞벌이 家(うち) : 일반적으로는 집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저희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専念(せんねん) : 전념</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b>니하오 쑹구위 &lt;55&gt;</b></p> <p>你习惯吃上海菜吗? 당신은 상해 음식에 적응 되었습니까?</p> <p>A: 你习惯吃上海菜吗? Ni xíguàn chī Shànghǎi cài ma? 니 시꾸안 쉰 상하이차이 마? B: 我习惯吃上海菜。吃上海菜很好吃。 Wǒ jùsàn Shànghǎi cài hǎo chī. Shànghǎi cài hǎo chī. 저 쑹구위 상하이차이 좋아 먹어요. 상하이 요리很好吃. A: 是吗。你很喜欢上海菜。 Zhème ài hǎo chī Shànghǎi cài. 맞아요. 니 쑹구위 상하이 요리 좋아 먹어요. A: 当然啦。 Dāngrán la. 당연히요.</p> <p>A: 너 상해 음식은 좋아 먹어? 니니? 상해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 요리 먹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A: 그렇. 너는 상해 요리 정말 좋아 먹어요. B: 당연하지.</p> <p>习惯 [xíguàn] : 습관 喜欢 [xǐhuan] : 좋아하다 好吃 [hǎochī] : 맛있하다 当然 [dāngrán] : 당연하다</p> <p>7월 : 새 - 새끼를 낳고 새끼를 돌보는 습관</p> <p>&lt;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gt; ☎ 3838-868</p>	<p><b>한자 이야기 &lt;482&gt;</b></p> <p>鼻祖(비조) 코비, 조상 조</p> <p>비조(鼻祖)는 일이나 사물의 처음을 뜻하며, 특히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을 가리킨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임신을 했을 때 태아(胎兒)는 신체기관 중에서 코가 제일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어떠한 의학상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코를 모든 '사물의 시초'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첫아들을 비자(鼻子)라고 하고, 화가들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코부터 그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모두 코를 '처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명나라 말에 장자열(張自烈)이 편찬한 '정자통(正字通)'이라는 자서(字書)에는 "인간의 배태(胚胎)에서 코가 먼저 형태를 이룬다. 그러므로 시조를 일컬어 비조라고도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편 혈족(血族)의 시초(始初)인 경우에는 시조(始祖) 또는 원조(元祖)라는 말도 사용한다.    비조와 비슷한 말로는 공격의 개시를 알리는 데 사용하였던 '우는 화살'이란 뜻의 효시(嚆矢)와, '술잔에 넘친다'는 뜻의 '남상(盞觴)'이 있다.</p> <p>&lt;한예원(韓藝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p>
--	---	---	---